단돈 100원으로 10억원을 따낸 남자?

LG 사내 벤처사업팀 MECA팀의 엽 철수 씨.

알미전까지도vido 교육과 새사원이지만 지금은 창업자금 10억원을

손에 쥐어 놓은 이고속달인 자기사업가입니다.

그의 사업계획은 공중전화망을 이용해 서비스를

공급하는 '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교육사업'.

100원짜리 온라인 공중전화를 갈대 따오르는

아이디어가 LG 사내 벤처사업으로 선정되면 시

회사로부터 자금과 기술 등의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.

아이디어 하나로 따낸 창업자금 10억원 -

여렇게하면 100억원, 200억원으로 불릴 수 있을까

그는 오늘도 신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.

LG 사내 벤처도 - 자기사업가로 가위 도립니다.

LG는 사원들의 창업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창조되어 있는

사업가상을 받기 위해 국내기업 최초로 벤처제도를 실시.

사원들에게 자금과 기술을 점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
LG/인재개발위원회
http://www.lg.co.kr